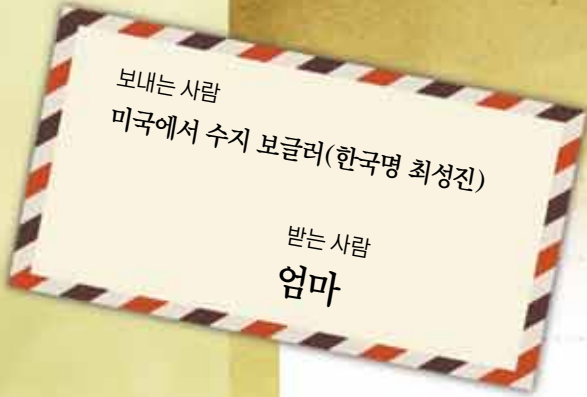




명절 때면 누구나 가족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 한다. 그 마음을 접은 채 취업 준비·생업 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근한 휴식을 잠시 미루고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이들도 있다. 광주일보가 그 애틋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대신 써드린다.

### 한국 엄마 어디에... 보고 싶어요

### 할머니가 끓여준 시래기국 생각나요



엄마-

추석은 한국의 특별한 명절이라고 들었어요. 미국 추수감사절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고요. 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엄마의 행적을 찾아 광주에 내려갔어요. 제가 맡겨졌던 고아원인 광주 충현원 자료에 따르면 저는 1957년 2월28일 광주의 어딘가에 버려져 공무원들의 손에 갓난 아이로 충현원에 왔다고 합니다. 제 품에서는 '최성진'이라는 이름과 출생일 1956년 10월 11일이라는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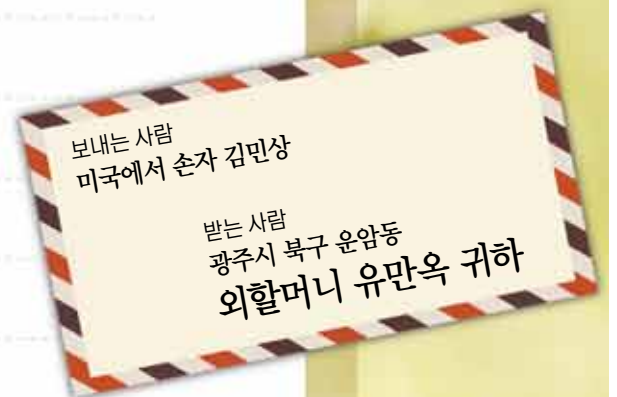


저는 5살때인 1961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우드스톡의 바버라와 도날드 브로디씨의 딸로 입양돼 수지 앤 브로디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됐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어요. 현재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자신의 딸을 버려야했을 때 오히려 고맙스러웠을 엄마의 마음이 더 안쓰러워요. 이 편지가 꼭 엄마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제 가족이 돼주시길 바래요. 혹시라도 주변에 친척이라도 이 편지를 본다면 꼭 연락주세요. (광주일보 062-220-0654)



수지 보글러(여·60·미국) 씨는 갓난 아기때 광주의 어딘가에 버려졌다. 공무원들의 손에 광주시 남구 충현원에 맡겨진 채 5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현재 미국의 명문사립고 서필드아카데미 재단이사를 맡는 등 자선교육사업가로 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이제 잃어버린 퍼즐조각을 맞추기 위해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한다.



할머니께

항상 할머니만을 생각하는 귀여운 손주 민상이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집밥' 생각이 간절해요. 어릴적 자주 해주셨던 시래기 된장국은 자다가도 떠오르곤 합니다. 어린시절 품속에 꼬옥 안아주시면서 재워주신 할머니의 품은 타국 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그리워집니다.

민상은 떠나기 전까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성실하게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늦지 않게 멋진 성공을 거두고 할머니를 찾아갈게요. 그리고 저 장가가는 모습 꼭 보고싶다고 하셨죠?

그러니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꼬박꼬박 챙겨드시면서 건강관리 하셔야해요. 키워주신 은혜 평생 갚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셔야합니다. 아픈 기라도 하시면 제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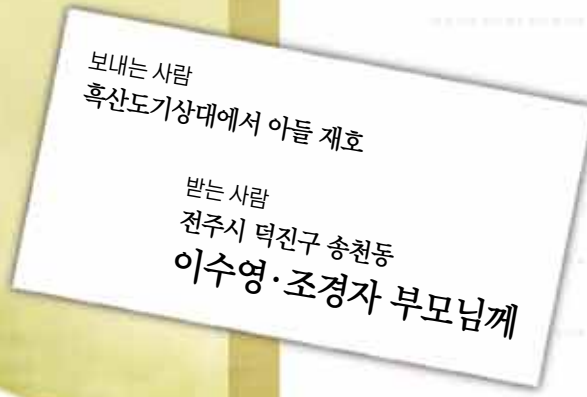
못된지 오래됐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네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김민상(23)씨는 8년전 미국(뉴욕)으로 이민을 떠났다. 김씨는 9살부터 16살때까지 먼저 미국으로 떠난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다고 한다.

### 두 분만 지내실 추석 마음에 걸려요

### 이 악물고 공부해 꼭 취직할게요



부모님께

기상청에 입사한지 3년 만에 흑산도에 들어갔죠. 백길로만 2시간이 넘어 대부분 직원들이 꺼려하는 곳이라 흑산도 발령에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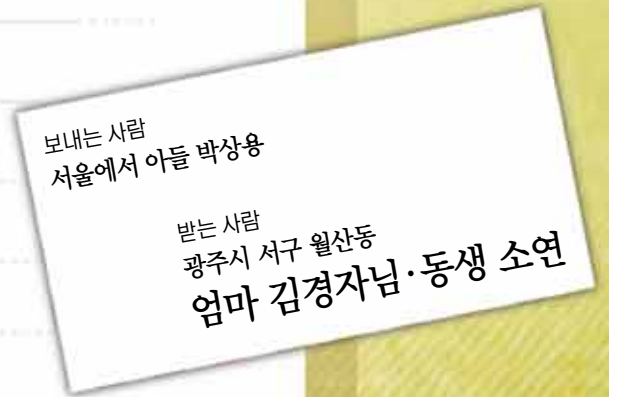
저는 금방 적응했어요. 처음 접해보는 고층관측도 재밌고 직접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고향을 찾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와 자취를 하게된 탓에 '우리 장남 끼니는 어떻게 하나'라며 늘 걱정해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실 저보다 명절을 두분만 보내야 한다는 게 아들은 더 마음에 걸려요.

흑산도에서 보내는 첫 명절. 비록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분의 마음은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한반도 서남단 흑산도기상대 직원인 이재호(31)씨는 추석 당일 근무조에 편성됐다. 3년전 기상청에 입사해 3개월전에는 흑산도로 발령받은 뒤 흑산도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다. 장남인 이씨는 부모님 두분이서만 명절을 보내야하는 게 못내 아쉽다고 한다.



엄마·동생 소연이에게

늘 걱정만 끼쳐드리는 아들 상용이가 편지드립니다. 그동안 방황도 많이 하면서 엄마 속을 상하게도 했었죠. 이제는 이 악물고 공부해 꼭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은 늘 엄마와 동생이 걱정스러워요. 고향을 떠나와 아무도 없는 광주로 내려가 서로를 의지하는데,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조차 되질 않습니다. 평생 장사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던 돌이서-

특히 동생 소연이는 새벽까지 취객들을 상대하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엄마 일을 돕는데, 또래 친구들 처럼 카페를 가거나 영화를 보는 것조차 포기한 채 지내는 것을 보면 오빠는 가슴이 아프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가족 없이 단둘이 가게를 지켜야하는 엄마와 소연이가 더 안쓰럽고 그립습니다. 꼭 합격해서 내년 추석에는 꼭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갈게요.



박상용(28)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머무르며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이 강원도 인제인 그는 3년전 어머니와 여동생 단둘이 광주에 내려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게 늘 걱정스럽다고 한다.



선물같은 추석

훈훈한 마음의 정 함께 나누며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주식회사 대영  
**daeyoung**  
☎(062) 670-0300

**LIRIKOS** 화장품  
북구지사 임직원 일동  
☎(062) 255-5056

**Re:NK** 화장품  
광주상무지사 임직원 일동  
☎(062) 376-7171